coupang newsroom

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와 덕평물류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이태원 강사의 거짓말

2020. 7. 6.

	부천2	고양	덕평
지표환자 증상발현일	5월13일	5월26일	6월22일
지표환자 확진통보일	5월24일	5월28일	6월24일
통보까지 걸린 날짜	**11일***	**2일**	**2일**
추가 확진자	**81명**	**0명**	**0명**

*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역학조사가 지연된 결과

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5월 24일 이후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.

하지만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, 고양 및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동일한 정책이 적용돼 왔고, 쿠팡은 각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. 물론 실제 운영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지표환자의 접촉자가 소수에 불과한 발생 초기의 '골든타임'(golden time)에 얼마나 빨리 초기 대응을 하느냐입니다. 이 때 확진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.

전 세계를 놀라게 한 K-방역의 핵심 비결도 바로 이 골든타임 동안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.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 되기 이전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신속 승인하여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,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 등과 같이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
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접촉자에 대한 광범위한 선제적 검사 및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고, 이는 확진자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.

부천신선물류센터와 달리 고양 및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정확한 진술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, 그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고양물류센터의 경우 확진자가 5월 26일 증상 발현 후 5월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 쿠팡도 통지를 받았습니다. 덕평물류센터 또한 확진자가 6월 22일 증상 발현 후 이틀만인 6월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 쿠팡도 통지를 받았습니다.

쿠팡 고양 및 덕평 물류센터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틀 만에 확진 통보된 데 비하여, 부천신선물류센터 첫 확진자는 무려 11일 후에야 통보되었습니다.

이렇게 역학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(이태원 강사)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. 이 때문에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서 접촉자 확인 및 격리가 지연됐고 쿠팡도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됐던 것입니다.

보건당국에 따르면 증상 발현 하루 전날은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합니다. 부천신선물류센터 첫 확진자는 증상 발현 하루 전날인 5월 12일에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쿠팡은 위 확진자의 확진 사실을 5월 24일에야 통보받았습니다. 그 사이에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서는 다수의 추가적인 감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.

이태원 강사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부천신선물류센터 감염 발생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.

이태원 강사는 5월 9일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, 이에 학원 수강생, 사진사 등 2, 3차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.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의 첫 확진자는 이 사진사가 참석한 돌잔치 뷔페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, 이와 같은 역학조사 지연으로 인하여 5월 24일에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.

이태원 강사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의 감염 발생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. 이는 **덕평물류센터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1명에 그쳤고, 196명의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**을 받았다는 데에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.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2020. 7. 6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을 통하여 덕평물류센터에서의 확진자가 증상 발생 뒤 이틀 만에 진단을 받아 접촉자 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 또 다른 사례인 **고양물류센터도 첫 확진자의 증상 발현 후 이틀 만에 확진 및 통보가 이뤄져 이후 1600명을 검사하고도 단 한 명의 추가 확진도 없었습니다.**

인천시는 5월 14일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태원 강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. 이는 위와 같이 이태원 강사의 거짓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쿠팡 또한 이태원 강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.

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각종 지침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고, 그 이상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습니다. 아무쪼록 부천과 덕평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발생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. 쿠팡은 결코 그 동안의 방역 노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. 방역에 완벽이란 없습니다.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사태 이후 '더 나은 방역'을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